

순천장씨 학서주손가(鶴棲胄孫家)의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 소개, 그리고 장한상의 「울릉도사적」 재론(再論)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이 글은 그동안 울릉도·독도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순천장씨(順天張氏) 학서주손가(鶴棲胄孫家) 기탁 문헌들 가운데서 1694년 울릉도 수토를 하였던 장한상(張漢相) 관련 자료를 소개하면서, 필자가 기왕의 연구¹에서 잘못 추정하여 기술한 사항들을 수정하고, 또 필자의 기왕의 연구를 축조(遂條) 논박한 유미림 박사의 비판²에 대해 필자의 관견(管見)을 재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순천장씨 학서주손가는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에 세거하고 있는 순천장씨 남산문중 학서(鶴棲) 장규섭(張奎燮, 1863-1940)의 종손가를 말한다. 학서

* 논문 투고일: 2019. 10. 20. 심사 완료일: 2019. 11. 14. 게재 확정일: 2019. 11. 14.

* 이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 울릉도·독도·동해 관련 한일 고사료 총집 연구(NAHF-2019-기획연구-1)의 일환으로 수행됨.

1 이원택,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집,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8, 13-15쪽 참고.

2 유미림, “「울릉도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 『동북아역사논총』 64호, 동북아역사재단, 2019.

주손가 소장 문헌은 고서류 108종 226책과 고문서류 221점으로, 전체가 2003년 후손 장건식씨에 의해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었다.³ 학서 주손가 문헌에는 순천장씨 족보 및 선조들의 행적을 기록한 실기류(實記類)의 문헌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특히 1900년에 편찬된 경자보(庚子譜), 1922년에 편찬된 임술보(壬戌譜), 1955년에 편찬된 을미보(乙未譜)가 모두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족보를 편찬할 때마다 동시에 가문의 문헌록도 편찬되었다. 경자보를 편찬할 때 『충효문무록(忠孝文武錄)』이 편찬되었으며, 임술보를 편찬할 때는 이름을 바꾸어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초간본)이 편찬되었고, 을미보를 편찬할 때 『승평문헌록』(복간본)이 편찬되었다. 이와 같이 족보와 문헌록이 동시에 주기적으로 편찬 간행되어 시계열적인 자료가 한 곳에 보관되어 있고, 편찬을 주도 했던 학서 장규섭과 그의 손자 장세호(張世鎬, 1903-1985)에 관한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한층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작년에 순천장씨 가문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가문의 문헌록을 동시에 편찬하였음을 보고하였다.⁴ 다만, 작년에는 『순천장씨족보』 정사보(丁巳譜, 1977)와 『승평문헌록』 초간본 및 복간본만을 열람하였고, 이 세 가지 자료만을 근거로 추론하였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게 되었다. 즉 경자보를 편찬할 때 『승평문헌록』 초간본이 나왔고, 임술보를 간행할 때 복간본이 나온 것으로 추론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국학진흥원의 학서 주손가 자료를 통해 경자보(1900), 임술보(1922), 을미보(1955) 등을 열람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찾아낸 『충효문무록』을 통해 많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 『충효문무록』은 경자보(1900)를 편찬할 때 함께 편찬된 첫 번째 문헌록이었고, 그에 따라 『승평문헌록』 초간본은 1922년 임술보 편찬시, 복간본은 1955년 을미보 편찬시 각각 편찬되었던 것을 확

3 자세한 목록은 한국국학진흥원 편,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 한국국학진흥원, 2004, 130-140쪽 참고.

4 이원택, 앞의 논문.

인할 수 있었다.

『충효문무록』의 중요성은 첫 번째 간행된 문헌록이라는 점과 그 안에 편목으로 실려 있는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 때문이다. 「절도공양세실록」은 「절도공실록(節度公實錄)」과 「소절도공실록(少節度公實錄)」으로 편목이 나뉘어, 계속 간행된 『승평문헌록』에 실린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에 학서주손가 문헌 속에서 『충효문무록』을 찾았으며, 또 단행본으로 엮어진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도 함께 찾게 되었다. 『충효문무록』에 선별되어 편집된 「절도공양세실록」의 모본 『절도공양세실록』을 함께 발견한 셈이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한 『절도공양세실록』에도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이 실려 있다. 다만, 아쉽게도 「울릉도사적」은 뒷부분 몇 장이 결락된 상태이다. 물론 『절도공양세실록』은 작년에 의성조문국박물관에 소장된 경덕사 기탁 문헌 가운데서 찾아내 이미 소개한 적이 있다.⁵ 그러나 금번 학서주손가본 『절도공양세실록』의 발견은 경덕사본 『절도공양세실록』외에도 또 다른 필사본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충효문무록』 편찬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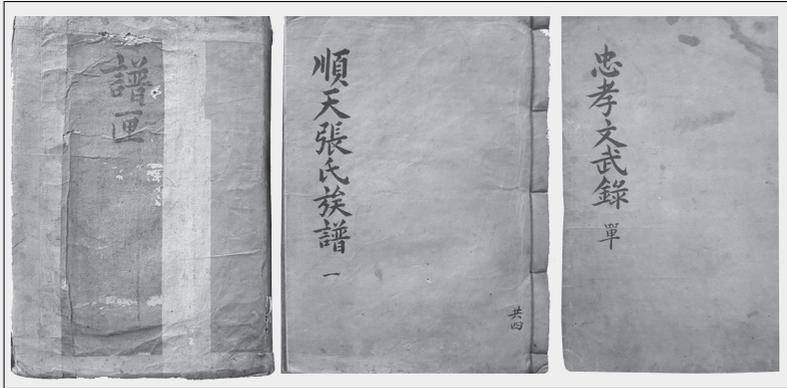
이처럼 순천장씨 가문의 족보가 편찬될 때마다 아울러 가문의 문헌록이 편찬되었는데, 우선 양자의 관계에 관한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들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금번 발견된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도사적」 및 『서계잡록』 「울릉도」와 관련하여 필자가 기왕의 연구에서 주장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축조 비판한 유미림 박사의 반론에 대하여 필자의 천견(淺見)을 다시 한 번 제시하려고 한다.

5 이원택, 앞의 논문.

II. 순천장씨 족보 편찬과 문헌록 편찬의 관계

1. 경자보와 『충효문무록』 편찬

순천장씨 족보 편찬 내력을 살펴보면, 순조 5년의 을축보(乙丑譜, 1805)가 맨 처음 편찬된 족보라고 추정된다. 아쉽게도 필자는 아직 을축보를 열람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6대손 유규(柳奎)의 서문, 장태은(張泰殷)의 지(識), 장광한(張光漢)·장동익(張東翼)의 발문(跋文)이 을축보 이후에 편찬된 족보들에 실려 있어, 을축보가 1805년에 편찬된 사실은 확실하다.



〈그림 1〉 경자보와 보갑(譜匣, 족보케이스)

『충효문무록』

을축보 이후 근 100여 년 만에 경자보(庚子譜, 전4권)가 고종 37년(庚子, 1900)에 편찬되었다. 경자보에는 「순천장씨족보서(順天張氏族譜序)」가 실려있다. 이 서문은 장성환(張星煥)이 썼는데, “상지삼십칠년경자유희월후손성환근서(上之三十七年庚子流火月後孫星煥謹書: 성상 37년 경자년 7월 후손 장성환 삼가 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시조태사포음선생사적(始祖太師圃蔭先生事蹟)」 및 구보(舊譜: 乙丑譜)의 서문과 발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끝에 장규섭(張奎燮, 1863-1940)의 발문이 있으며, 발문 말미에 “승정오경자칠월상한후손규섭근

서(崇禎五庚子七月上澣後孫奎燮謹書: 승정 후 다섯 번째 경자년 7월 상순 후손 장규섭 삼가 씀)라고 기록되어 있다. 승정 후 다섯 번째 경자년은 고종 37년(1900)이다. 이 당시 족보편찬을 장규섭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자보의 편찬과 함께 문헌록인 『충효문무록』(1900)이 편찬되었다. 『충효문무록』의 목록을 보면, 「달산선생실기집략(達山先生實紀集畧)」, 「이은공삼은공사적(二隱公三隱公事蹟)」, 「문암공행적(文巖公行蹟)」, 「성남공유적(星南公遺蹟)」,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편목 구성은 이후 『승평문헌록』 편찬에서도 계속된다.

『충효문무록』의 끝부분에 「선세사적발(先世事蹟跋)」이라는 제목으로 장규섭(張奎燮)의 발문이 실려 있다. 발문의 말미에 “상지삼십칠년경자유화월후손규섭경지(上之三十七年庚子流火月後孫奎燮敬識: 성상 37년 경자년 7월 후손 장규섭 삼가 기록함)”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승평문헌록』에 계속되는 장규섭의 발문이 『충효문무록』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효문무록』의 발문은 상당 부분 윤문 수정되어, 1922년 및 그 이후에 간행된 『승평문헌록』에 계속하여 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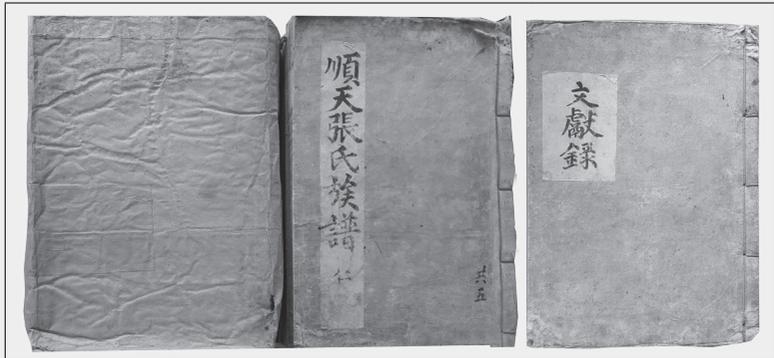
경자보와 『충효문무록』 편찬을 주도한 장규섭은 『학서집(鶴棲集)』(乾·坤) 4권 2책을 남겼다. 『학서집』에는 장한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주요 내용으로 경자보 발문과 임술보 발문, 문헌록 발문, 절도공사우중수통문(節度公祠宇重修通文), 절도사공길제고유문(節度使公吉祭告由文), 소절도공길제고유문(少節度公吉祭告由文), 절도사공상향축문(節度使公常享祝文) 등이 실려 있다.

2. 임술보와 『승평문헌록』(초간본)

임술보(壬戌譜, 전5권: 仁義禮智信)는 1922년(壬戌)에 편찬되었다. 맨 앞에 홍재겸(洪在謙)의 서문이 있다. 이어서 을축보의 서문과 발문, 경자보의 서문과 발문이 있다. 그리고 임술보 본문이 이어지며 맨 마지막에 장규섭의 발문이 있다. 임술보 편찬 역시 장규섭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술보를 편찬하면서 『충효문무록』을 증보하여 『승평문헌록』(초간

본)을 편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충효문무록』에서 달라진 점은 1912년(壬子)의 「영각중수문(影閣重修文)」이 장한상의 「비명(碑銘)」 다음에 추가된 점이다. 「영각중수문」은 울릉도 수도(搜討) 등 장한상의 업적을 기려, 1912년 사포유회(蛇浦儒會)에서 퇴락한 사당의 중수(重修)를 발의(發議)한 통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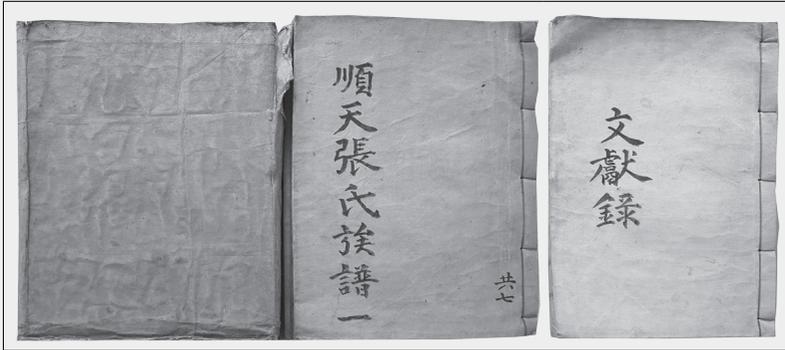
〈그림 2〉 임술보와 보갑

『승평문헌록』(초간본)

그리고 『승평문헌록』(초간본)의 말미에 장규섭의 「문헌록발(文獻錄跋)」이 있는데, 『충효문무록』의 발문 「선세사적발(先世事蹟跋)」을 다듬어 「문헌록발」을 만들고, 「선세사적발」 말미의 「상지삼십칠년경자유화월후손규섭경지(上之三十七年庚子流火月後孫奎燮敬識)」를 「문헌록발」의 말미에서는 「성상천조후삼십칠년임술유화월후손규섭경지(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後孫奎燮敬識)」라고 고쳤다. 문제는 성상 등극 37년은 경자년(1900)인데, 임술년(1922)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3. 을미보와 『승평문헌록』(복간본)

을미보(乙未譜, 전7권)는 1955년(乙未)에 편찬되었다. 김형칠(金衡七)의 서문과 장세호(張世鎬)의 발문이 있다. 장세호는 학서 장규섭의 손자이고, 학서주손가 문헌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장건식의 조부다.



<그림 3> 을미보와 보갑

『승평문헌록』(복간본)

을미보를 편찬하면서 『승평문헌록』(초간본)을 약간 수정하여 복간본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목록에서 보듯 초간본의 몇 글자를 삭제하였고, 또 이 은공사적(二隱公事蹟)에 수록된 묘비문을 삭제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런데 복간본에도 장규섭의 「문헌록발」을 실었는데, 말미에는 “성상천조후삼십칠년유화월후손규섭경지(聖上踐阼後三十七年流火月後孫奎燮敬識)”라고 기록하여, 초간본에서의 ‘임술(壬戌)’ 두 자가 삭제되어 있다. 경자년의 『충효문무록』의 발문 「선세사적발」을 윤문하여 임술년(1922) 『승평문헌록』(초간본)에 사용하였고, 임술년의 발문을 을미년(1955) 『승평문헌록』(복간본)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술’ 두 자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고종 37년이라고 하였으므로 경자년(1900)이라고 하는 셈이 된다. 굳이 앞 시대에 간행된 발문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성상천조후 37년’을 삭제하고 ‘임술’ 두 자를 그대로 두어 ‘임술유화월후손규섭경지(壬戌流火月後孫奎燮敬識)’라고 표기하고, 범례(凡例) 혹은 서문 등 적절한 곳에서 그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4. 정사보와 『승평문헌록』(중보판)

정사보(丁巳譜, 전2권)는 1977년(丁巳) 대전의 대경출판사에서 인쇄되었다.

을미보 서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에 경자보와 임술보의 서발문을 붙이고, 정사보 만의 별도의 발문은 없다. 특기할 것은 정사보의 가장 앞에 정사보와 『승평문헌록』의 오지를 바로잡은 정오표가 붙어 있는 점이다.



〈그림 4〉 정사보(1, 2권)

『승평문헌록』(증보판)

정사보를 편찬하면서 『승평문헌록』을 대폭 증보하여 간행하였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이 「소절도공실록(少節度公實錄)」 다음에 「학서공사적(鶴棲公事蹟)」을 추가한 점이다. 학서 장규섭의 학문과 문중 사업을 손자 장세호가 이어받아 할아버지 학서공의 학문과 절도공양세 선양 사업을 기려 「학서공사적」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문의 말미에 “성상천조후삼십칠년임술유화월후손규섭경지(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後孫奎燮敬識)”를 복기한 점이다. 장규섭의 원래 발문을 지어진 모습 그대로 복구하였다는 점에서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의미가 있지만, 고종 37년은 경자년(1900)이므로 임술년(1922)이라고 하면 여전히 서로 맞지 않는다.

참고로 순천장씨 가문은 정사보 이후에는 한글족보 임신보(壬申譜, 1992)를 편찬 간행하였다. 이때 『승평문헌록』도 대폭 증보하여 한글로 번역 간행하였다. 『승평문헌록』(한글본)에는 편집인 장락문(張洛文)의 한글 발문이 있으며,

발행인은 장재수(張在秀)이고, 대구의 대보사에서 1992년 간행되었다.⁶

III.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의 소개

1. 『충효문무록』과 『승평문헌록』의 관계

앞에서 보았듯이 『충효문무록』은 경자보(庚子譜) 편찬시에 아울러 편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임술보 편찬과 더불어 『충효문무록』은 『승평문헌록』으로 이름이 바뀌어 족보가 증보될 때 마다 문헌록 역시 증보 편찬되었다.

『충효문무록』의 목차는 「달산선생실기집략(達山先生實紀集畧)」, 「이은공삼은공사적(二隱公三隱公事蹟)」, 「문암공행적(文巖公行蹟)」, 「성남공유적(星南公遺蹟)」,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목차 비교표를 보면 『충효문무록』과 『승평문헌록』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충효문무록』과 『승평문헌록』(초간본)은 학서 장규섭이 직접 편찬하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발문을 많이 윤문하여 수정한 점이 특징이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각중수문(影閣重修文)』이 새로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승평문헌록』(복간본) 역시 초간본과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다만, 장규섭의 손자 장세호가 주도하여 편찬한 『승평문헌록』(1977)은 내용이 대폭 증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작년의 연구에서는 『충효문무록』의 존재를 몰랐고 또 『순천장씨족보』(경자보) 등 실물을 보지 못하고 유일하게 정사보(丁巳譜, 1977)만 참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승평문헌록』(초간본)이 경자본(1900) 편찬시에 편찬된 것으로, 그리고 『승평문헌록』(복간본)은 정사보(1977) 편찬시에 조금 수정하여

6 順天張氏譜所 編, 『昇平(順天張氏)文獻錄』, 大邱: 大譜社, 1992.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고하였다.⁷ 학서주손가의 자료를 참고한 뒤에 비로소 1900년 경자보 편찬시에 『충효문무록』이 편찬되었고, 1922년 임술보 편찬시에 『승평문헌록』(초간본)이 간행되었으며, 1955년 을미보 편찬시에 『승평문헌록』(복간본)이 간행되고, 1977년 정사보 편찬시에 『승평문헌록』(중보판)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1. 『충효문무록』과 『승평문헌록』의 목차 비교

충효문무록 (1900)	승평문헌록 (초간본, 1922)	승평문헌록 (복간본, 1955)	승평문헌록 (중보판, 1977)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見麗史 昇平誌 文忠公永慕錄 實紀序 遺事後敘 奉安文 祝文 實紀跋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麗史 昇平誌 永慕錄 實紀序 遺事後敘 白川書院奉安文 祝文 實紀跋 白川書院奉安圖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麗史 昇平誌 永慕錄 實紀序 遺事後敘三 奉安文 祝文 實紀跋 白川書院奉安圖	達山先生實紀集略 遺事 麗史 昇平誌 永慕錄 實紀序 敬題遺事後 謹書遺事後 遺事後敘 白川書院奉安文 五賢常享祝文 實紀集略跋 白川書院奉安圖
二隱公三隱公事蹟 行狀	二隱公事蹟 墓碑文	二隱公事蹟	二隱公事蹟 墓碑文
	三隱公事蹟 行狀略	三隱公事蹟 行狀	世隱齋公事蹟 墓碑文 三隱齋公事蹟 行狀略 墓碑文 訓練院參軍公墓碣銘 司直別侍尉顯信枝尉九成 公墓碑文 進士公墓碣銘 軍器寺僉正公墓碑文 訓導公行狀

7 이원택, 앞의 논문, 13-15쪽 참고.

文巖公行蹟 序 墓誌 墓誌跋 奉安文 祝文 附四賢祝文 附四賢復享文 行蹟跋 白川書院奉安圖	文巖公行蹟 墓誌 序 白川精舍奉安文 祝文 附四賢祝文 附四賢復享文 行蹟跋 孝閣重修記	文巖公行蹟 墓誌 序 奉安文 祝文 附四賢祝文 附四賢復享文 行蹟跋 孝閣重修記	文巖公行蹟 墓誌 行蹟序 白川精舍奉安文 常享祝文 附四賢祝文 白川書院復享文 行蹟跋 孝閣重修記
星南公遺蹟 南州日錄序 詩 書 附禮判及答右相答書 墓表 寓哀碑辭 進士公墓表	星南公遺蹟 詩 書 附禮判答書 附右相答書 南州日錄序 墓表 寓哀碑辭 進士公墓表	星南公遺蹟 詩 書 附禮判答書 附右相答書 南州日錄序 墓表 寓哀碑辭 進士公墓表	星南公遺蹟 詩 書 附禮判答書 附右相答書 南州日錄序 墓表 寓哀碑辭 成均進士公墓碑文 贈通禮院左通禮公墓碣銘 僉正公墓碑文 附進士公墓表
節度公兩世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節度公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節度公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節度公實錄 賜祭文 輓 墓碣銘
北兵使公實錄 ⁸⁾ 賜祭文 附李判書祭文 碑銘	少節度公實錄 賜祭文 祭文 墓碣銘 影閣重修文	少節度公實錄 賜祭文 祭文 墓碣銘 影閣重修文	少節度公實錄 賜祭文 祭文 墓碣銘 影閣重修文
			鶴棲公事蹟 行狀 墓碣銘
先世事蹟跋	文獻錄跋	文獻錄跋	文獻錄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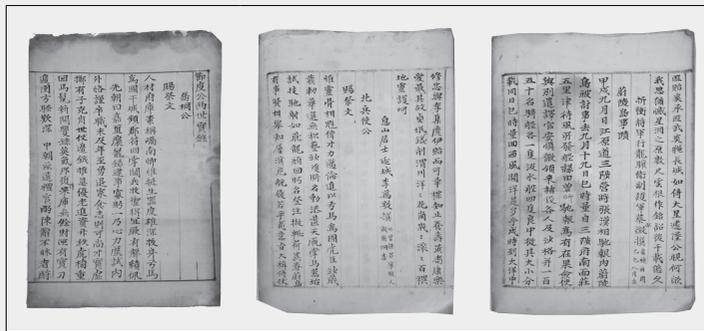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충효문무록』에 들어있는 「절도공양세실록(節度公兩世實錄)」편목이다. 「절도공양세실록」이란 편목 하에 세목으로 절도공(節度公) 장시규(張是奎)에 대한 사제문(賜祭文), 만(輓), 비명(碑銘), 이어서 북명사공

8 北兵使公實錄은 목록에는 없으나, 본문에는 제목이 있어서 필자가 목록에 추가하였다.

(北兵使公) 장한상(張漢相)에 대한 사제문(賜祭文), 부이판서제문(附李判書祭文), 비명(碑銘)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책의 본문에서는 장한상의 사제문 앞에 「북병사공실록(北兵使公實錄)」이라는 편 제목이 들어 있다. 『충효문무록』의 「절도공양세실록」은 이후 『승평문헌록』에서 「절도공실록(節度公實錄)」과 「소절도공실록(少節度公實錄)」이라는 편목으로 정착된다.

2. 학서주손가본 「절도공양세실록」의 「울릉도사적」

필자는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의 학서주손가 문헌 속에서 필사본 『절도공양세실록』을 새로 발견하였다. 이 학서주손가본 『절도공양세실록』은 원래의 앞표지와 뒷표지는 모두 떨어져나가고 없으며(한국국학진흥원에서 표지를 새로 만들고 수리함), 책의 끝부분에 「울릉도사적」이 실려 있으나 「울릉도사적」의 후반부 몇 장은 떨어져 나가고 없다. 학서주손가본에는 경덕사본을 기준으로 6쪽 3행 이하 일곱 행, 7쪽 열 행, 8쪽 세 행, 9쪽 일곱 행 등 총 27행(약 3쪽 정도)이 결락되고 없다.



〈그림 5〉 「절도공양세실록」(첫면)

「북병사공」(첫면)

「울릉도사적」(첫면)

학서주손가본과 경덕사본의 「울릉도사적」을 대조해 보면, 오탃자 등 글자 출입이 눈에 띄는데, 학서주손가본이 오탃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경덕사

본을 대본으로 삼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⁹ 학서(鶴棲) 장규섭은 경자보(庚子譜) 편찬과 『충효문무록』 편찬을 주도하였는데, 『충효문무록』에 처음으로 「절도공양세실록」이 편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그 당시(1900) 경덕사 소장의 『절도공양세실록』을 활용하고, 또 별도로 1부를 필사하여 보관한 것이 학서주순가 문헌 가운데서 발견된 『절도공양세실록』이 아닐까 추정한다.

표2. 「울릉도사적」 4종 글자 출입 예시

「교동수사공안제록」 「울릉도사적」 (경덕사본)		「절도공양세실록」 「울릉도사적」 (경덕사본)		「절도공양세실록」 「울릉도사적」 (학서주순가본)		「절도공양세비명」 「울릉도사적」 (경덕사본)	
張某	1면 1행	張漢相	1면 1행	張漢相	1면 1행	張漢相	1면 1행
搜事	1면 1행	被討事	1면 2행	被討事	1면 2행	被討事	1면 2행
領率	1면 3행	領來	2면 2행	領來	1면 4행	領來	1면 5행
水汲船	1면 4행	汲水船	2면 3행	汲水船	1면 5행	汲水船	1면 6행
自北蔽天	1면 8행	自此蔽天	2면 7행	自此蔽天	2면 3행	自北蔽天	2면 4행
東西北三處，亦有篁竹田十一處	3면 2행	누락	4면 2행	누락	3면 9행	누락	4면 7행
四望遠近	3면 6행	西望遠近	4면 7행	西望遠近	4면 3행	西望遠近	5면 6행
又有石葬十五所，北方長谷	3면 7행	누락	4면 8행	누락	4면 4행	누락	5면 7행
西南大谷有人居基址七所	3면 9행	누락	4면 9행	누락	4면 5행	누락	5면 8행
猫鼠	5면 1행	猫兒	6면 1행	猫兒	5면 9행	猫兒	8면 2행
十四處	8면 5행	四五處	10면 3행	四五處	7면 10행	四千處	14면 6행
馳報事	9면 2행	馳報狀	10면 10행		결락	馳報狀	15면 7행

IV. 「울릉도사적」과 「울릉도」 관련 재론(再論)

유미림 박사는 필자의 논문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9 중간에 언제인가 좁은 부분은 수리한 부분들에 더러 다른 글자를 쓴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無適所向을 無敵所向으로, 可藏處를 可葬處로 잘못 옮긴 곳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를 대상으로 거의 축조 비판식의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⁰ 신광박(申光璞)에 관한 새로운 사료를 제시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추론에 근거한 주장들이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논쟁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의 논지를 과도하게 밀고 나가 필자의 의도를 과잉 해석하거나 심지어 오해하여 반론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특히 필자의 본래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만한 부분에 대해 필자의 본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반론을 펼쳐 보려고 한다.

1. 「울릉도사적」의 필사자 신광박과 필사 연도 문제

먼저 「울릉도사적」의 발견 경위에 대한 필자(이하 이원택으로 표기)의 서술에 대하여, 유미림 박사는 ‘울릉도사적의 발굴 경위’라는 소제목으로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서술하였는데, 이원택의 서술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준 것으로 받아들이며 감사드린다.

다음으로 『절도공양세비명』에 들어있는 「울릉도사적」의 필사 연도에 대해, 이원택의 주장은 필사 연도가 1722년이 아니고 장한상 사후의 어느 임인년(1782, 1842, 1902, 1962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동수사공만제록』과 『절도공양세실록』은 위의 어떤 임인년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론하였다.¹¹

이에 대해 유미림 박사는 「울릉도사적」이 장한상의 “사후에 필사된 것이 맞다면 임인년을 1722년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후 50년이 훨씬 지난 1782년 혹은 그 이후에 비명과는 관계없는 1694년의 보고서를 다시 필사·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그때 「울릉도사적」은 1694년경 필사했던 것을 삽입한 것인가, 아니

10 유미림, 앞의 논문.

11 이원택, 앞의 논문, 10-11쪽 참고.

면 1782년 전후에 다시 필사한 것인가?”¹² 나아가 이원택이 「울릉도사적」 뿐만 아니라 그 글이 실려있는 『절도공양세비명』전체를 신광박이 썼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유미림 박사는 서체 검증을 통해 이원택의 견해를 논박하였다. 이원택은 일반인의 눈으로 보아 같은 글씨로 보인다고 한 것이지, 서체를 감식할 만한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유미림 박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체 검증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신광박이 임인년에 『절도공양세비명』을 엮었다는 사실은 성립하지만, 이런 사실로 인해 임인년이 「울릉도사적」의 필사 연도임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¹³

유미림 박사의 논지는 『절도공양세비명』에 들어 있는 글들의 서체가 모두 다르고, 심지어 「울릉도사적」 본문의 서체와 그에 부기 되어 있는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12글자의 서체도 다르기 때문에 신광박이 『절도공양세비명』을 필사한 것이 아니라 편집만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집 시기가 1782년 임인년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유미림 박사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료를 찾아내었기 때문이다. 유미림 박사는 『절도공양세비명』에 들어 있는 「울릉도사적」의 필사자로 간주되던 신광박에 관한 사료를 찾아낸 것이다.

신광박의 생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사료가 있다. 조선 후기 무반의 한 사람인 노상추(1746~1829)가 남긴 『盧尙樞日記』에 ‘신광박(申光璞)’이라는 인물이 보인다. 정조 2년(1778) 5월 7일자 일기에 “尙州道湖申光璞, 來訪告歸”가 보이고, 순조 15년(1815) 1월 28일자 일기에 “晚蛇浦申光璞來訪, 卽辛巳生云”이 보인다. 경상도 선산이 고향인 노상추는 청년기와 노년기를

12 유미림, 앞의 논문, 54쪽 참고.

13 유미림, 앞의 논문, 58쪽 참고.

고향에서 보냈지만 관직 생활을 하는 30여 년은 한양·삭주·홍주 등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일기에 방문객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신광박의 이름이 보이므로 신광박이 동향인 노상추의 임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일기에 따르면, 신광박이 상주 도호를 지냈으며 신사년 즉 1761년생이고 사포(蛇浦) 즉 의성 사람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노상추를 방문한 신광박은 『절도공양세비명』에 실린 「울릉도사적」의 신광박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광박이 말한 임인년 봄은 1782년이고 그의 나이 22세에 『절도공양세비명』의 편집에 관계했다는 사실이 성립한다.¹⁴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유미림 박사의 글을 보고 이원택도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노상추일기』에서 신광박을 검색하였는데, 위의 인용문과 같이 두 번 검색되었다. 한 군데는 상주(尙州)의 도호(道湖) 출신으로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사포(蛇浦) 출신으로 나온다. 유미림 박사는 도호를 벼슬이름으로 본 듯한데, 벼슬이름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았다. 도호와 사포는 모두 위천(渭川, 渭水라고도 불림)가에 있는 이웃 마을이다. 도호는 현재 단밀면 용곡리 도리비 마을로 추정되고, 사포는 유미림 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구천면 용사리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두 곳 모두 상주목 단밀현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미림 박사는 “『절도공양세비명』에 실린 세 가지 문서는 신광박 이전 즉 1782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는 그 이전에 필사되어 있던 세 문서를 1782년에 『절도공양세비명』으로 엮으면서 기입한 것”이 되고, “또 다른 가능성은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글자를 신광박이 임인년에 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사실을 밝혀 놓기 위해 기입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14 유미림, 앞의 논문, 59쪽 참고.

15 유미림, 앞의 논문, 60쪽.

이에 대해 이원택은 딱 한마디만 물겠다. 유미림 박사의 주장대로 신광박이 필사자가 아니라 편집자라면, 왜 “申光璞編”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申光璞書”라고 쓰여 있는가? 조선시대의 글에서 편집하였다는 뜻으로 “編”자 대신에 “書”자를 쓴 경우도 있는가?

또 유미림 박사는 “『절도공양세실록』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제문과 만사, 비명이 실려 있어 제목과도 맞지 않는다. 『절도공양세비명』은 그 안에 수록한 내용에 비춰보면 오히려 이 제목이 더 부합된다. 그럼에도 두 서책 모두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울릉도사적」을 신고 있다.”¹⁶라고 하는데, 이원택의 생각은 오히려 「사제문」, 「만사」, 「비명」, 「울릉도사적」 등이 『절도공양세실록』이라는 명칭에 딱 들어맞는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보았듯이 순천장씨 가문만 보아도 사적(事蹟), 유사(遺事), 실록(實錄), 실기(實記) 등이 『문헌록』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조선시대에 널리通行되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다소 억울하여 반론을 제기하겠다. 유미림 박사는 특별히 인용할 필요도 없는 다음의 구절 즉 “장한상 후손이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의 발문에서 ‘聖上踐阼後三十七年流火月后孫奎燮敬誌’ 즉 고종 37년(1900)에 만들어졌음을 밝힌 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주까지 달아 마치 이원택이 게을러서 “성상천조후37년”이 언제인지 계산을 하지 못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원택 박사는 초간본에 “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后孫奎燮敬誌”라고 쓰여 있던 것이 복간본의 동일한 발문에서는 간지 “임술”만 삭제했다고 했는데(앞의 글, 14쪽), 성상 37년은 임술년이 아니라 경자년이다. 복간본에서 ‘임술’을 삭제한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¹⁷

16 유미림, 앞의 논문, 59쪽 참고.

17 유미림, 앞의 논문, 60쪽 각주 20 참고.

그런데 원래 이원택의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조금 길지만 전문을 인용해 본다.

『승평문헌록』은 의성 비안의 순천 장씨가에 전승되던 선대의 문헌들을 후손 장규섭(張奎燮)이 경자년(1900)에 편집·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초간본에 장규섭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성상천조후삼십칠년임술유화월후손규섭경지(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后孫奎燮敬誌)”라고 하였다. 그런데 ‘성상천조후삼십칠년’은 ‘고종이 등극한 지 37년’이라는 뜻이므로 임술년(1922)이 아니라 경자년(1900)이 된다. 복간본의 동일한 발문에서는 간지 ‘임술’만 삭제하고 인쇄하였다.¹⁸

이 『승평문헌록』의 초간본과 복간본에 대한 서술은 금번 새로운 자료 『충효문무록』의 발견으로 모두 수정해야 할 오류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충분히 서술하였다.

2. 『서계잡록』의 『울릉도』에 관한 천견(淺見) 재론(再論)

유미림 박사의 이원택 비판에 대해 바로 일일이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논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이원택의 기본 입장을 다시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로 『서계잡록(西溪雜錄)』이란 책에 대해 이원택은 본격적으로 연구해본 적이 없어 아직 정해진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책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서계종택(西溪宗宅)에서 나왔으며, 여러 사람의 글이 모여 있고, 표지(제목)도 없는 책인데, 장서각에서 기탁을 받을 때 『서계잡록』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¹⁹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글들이 모

18 이원택, 앞의 논문, 14쪽.

19 김기혁·윤희출,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124쪽.; 유미림, 『우리

두 박세당의 글이라거나, 박세당이 친히 글씨를 써서 필사하였다고 볼 근거도 확실치 않은 것 같다. 유미림 박사는 서체를 근거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필자는 글씨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서체를 가지고 문서를 감정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책자가 박세당이 쓴 것인지 아니면 그의 후손 중 누군가가 쓴 것인지 필자는 판정할 능력이 없다. 다만, 박세당이 남학명의 『와유록』에 서문을 써준 적이 있기 때문에, 『와유록』에 들어 있는 「울릉도」를 박세당 또는 그의 후손이 필사해 놓았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로 이원택은 『서계잡록』의 「울릉도」라는 글에는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글이 하나의 제목에 연속되어 있을 뿐, 그것이 원래 「울릉도」란 제목 아래 함께 묶여있는 완결된 하나의 글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원택은 이 글의 제목을 셋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와유록』의 「울릉도」와 일치하는 부분은 「울릉도」로, 군관 최세철의 정탐 부분은 「군관최세철울릉도정탐보고서」로, 장한상의 수도 부분은 「삼척영장장한상울릉도수도보고서」(경덕사의 「울릉도사적」과 혼동의 염려가 있으니, 구분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로 나누어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이원택은 『와유록』의 「울릉도」와 『서계잡록』의 「울릉도」(장한상 관련 부분 제외)는 그 저자가 누구이던(박세당이던, 남학명이던, 제3의 인물이던) 동일인의 작품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울릉도」는 당시의 교과서나 다름없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八道總圖)」를 전제로,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왼쪽에 지세는 낮으나 울릉도만큼 큰 섬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당시의 교과서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장한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들고 성인봉에 올라 서쪽으로 대관평을 보았으나 그 중간에 「팔도총도」에 나온 우산도(독도)를 찾지 못했다. 대신에 동남쪽 300리 멀리 울릉도 크기의 1/3에 해당하는 섬(독도)을 목격하고 와서 정부에 보고한 것이다. 당시 장한상이 울릉도에 진짜로 다녀온 것인지 의심

사료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54쪽.

하는 자도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지식인 관료들은 「팔도총도」를 교과서처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장한상이 대관령은 보았으면서도 울릉도의 왼쪽에 그려져 있는 우산도를 보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장한상과 안용복의 우산도(독도) 목격 성과는 신경준 단계에 이르러 지리지에 반영되었다.

넷째, 유미림 박사의 아래와 같은 표현에는 유감스럽게도 이원택이 우산도=독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들어 있다. 이는 이원택의 학술적인 주장을 왜곡하여 이해하는 지점으로, 아래처럼 맥락을 무시한 채 보면 마치 검열관의 태도를 연상케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나아가 그는 박세당의 글을 장한상의 글과 연관시켜 박세당이 ‘우산도’라고 한 점을 독도로 해석한 필자의 논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이원택 박사의 논지는 박세당의 「울릉도」에서 보이는 우산도 관련 내용이 『동국여지승람』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산도’를 울릉도에서 맑은 날 보이는 섬으로 해석한 필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²⁰

그러나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이는가? 그가 말하는 우산도는 어느 섬을 말하는가? 죽도인가 독도인가?²¹

박세당이 기술한 울릉도와 우산도 인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식과 다름이 없으므로 우산도를 독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²²

이와 같은 언급이 충분한 설명 없이 발췌되어 악용되면, 이원택은 우산도=독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 이원택은 『와유록』과 『서계잡록』의 「울릉도」에 나오는 우산도와 울릉도 관련 구절의 번역(transla-

20 유미림, 앞의 논문, 50-51쪽 머리말 참고.

21 유미림, 앞의 논문, 76쪽 참고.

22 유미림, 앞의 논문, 86쪽 국문초록 참고.

tion) 문제를 논한 것이다. 그리고 그 번역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에 있어서는 『서계잡록』의 「울릉도」 즉, 『와유록』의 「울릉도」가 장한상이 독도를 목격한 사실의 의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와유록』의 「울릉도」에서 우산도와 울릉도 인식은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단계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한 것이지,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이원택은 지난번 논문에서 “우산도(독도)”로 표기하여 우산도=독도를 전제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와유록』의 「울릉도」의 우산도(독도) 위치에 대한 인식이 「팔도총도」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누구도 「팔도총도」에 그려진 우산도가 울릉도의 왼쪽에 있다고 그것이 독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조선 초기의 지리 인식 수준이 그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울릉도」의 아래 인용문에서 한문 표점을 끊어 읽는 방식에 대해, 이원택은 문법으로 보나 맥락으로 보나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자 한다. 한문은 매우 정확한 언어라는 경구가 떠오른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盖二島去此不甚遠，一颿風可至。于山島勢卑，不因海氣極清朗，不登最高頂，則不可見，巒陵稍峻，風浪息，則尋常可見。麋鹿熊羆，往往越海出來，朝日纔高三丈，則島中黃雀，群飛來投竹邊串。

유미림 박사는 이 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여기(영해 일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랑이 잦아지면 (육지에서)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예사로 볼 수 있다. 아침 해가 세 길 높이로 떠오를 즈음이면, 섬 안의 누

런 참새들이 죽변곶(竹邊串)으로 무리지어 날아와 앉는다.²³

유미림 박사의 번역문을 한 문장씩 차례로 구체화 시켜보자. 첫째 문장은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여기(영해 일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유박사는 어디에 이를 수 있는지 대상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문맥으로 보면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목적지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두 섬이면서 한 세트의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육지에서 두 섬까지의 거리가 한번 큰 바람이 불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고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유미림 박사는 두 번째 문장부터는 갑자기 두 섬 사이의 거리로 입장을 바꾼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유미림 박사의 방식으로 하면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울릉도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이지 않는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장 역시 두 섬 사이의 거리로 해석해야 나름의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먼저 울릉도와 우산도 사이의 거리를 염두에 두면, (1)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울릉도로부터)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우산도에서) 예사로 볼 수 있다.’; (2)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우산도로부터)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울릉도에서) 예사로 볼 수 있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박사의 해석문을 보면 모호한 점이 있다. 즉 사슴과 노루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오며,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번역되어 있다. (1)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육지에서, ‘볼 수 있다’로 연결)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울릉도로부터)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육지에서) 예사로 볼 수 있다.’의 뜻인지, 아니면 (2)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육지에서=육지로부터)

23 유미림, 앞의 논문, 72쪽.

이따금 시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울릉도에서) 예사로 볼 수 있다.’
 는 것이 된다. 이 문장을 유박사처럼 해석하면, 또 하나의 난점은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라는 구절이 어느 구절과 상관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울릉이 더 높은 것 하고 시슴과 노루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하고 어
 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울릉이 더 높아 짐승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
 을 볼 수 있고, 우산은 낮아 짐승들이 바다 건너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
 인가.

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 문장은 (1) ‘아침 해가 세 길 높이로 떠오를 즈음이
 면, 섬(우산도) 안의 누런 참새들이 (울릉도로) 무리지어 날아와 앉는다.’ 또는
 (2) ‘아침 해가 세 길 높이로 떠오를 즈음이면, 섬(울릉도) 안의 누런 참새들이
 (우산도로) 무리지어 날아와 앉는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미림 박
 사는 네 번째 문장을 염두에 두고 세 번째 문장을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이따금 시슴과 노루들이 (울릉도로부터) 바다 건너
 (육지로) 오는 것을 (육지에서) 예사로 볼 수 있다.’고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만 굳이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보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겠는가?

이 문장을 이원택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이번에는 이해하기 더 쉽도
 록 괄호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추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대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은 여기서(영해, 즉 육지)부터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
 번 바람을 타면 (우산도와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해
 기(海氣)로 인해 아주 맑지 않거나²⁴, (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
 해, 즉 육지에서, 우산도가)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는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
 량이 잦아들면, (영해, 즉 육지에서, 울릉도를) 늘 볼 수 있다.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사

24 해기(海氣)로 인해 아주 맑지 않거나(不因海氣極晴朗): 지난번에는 인이 앞의 勢俟를 받는다고 보고 海氣를 주어로 極晴朗을 동사로 해석하였으나, 심사위원의 권고를 받고 나서 이번에는 因을 전치사로 보고 海氣를 因의 목적어로 해석하였다. 감사드린다. 해기(海氣)는 아래 인용한 이산해의 「울릉도설」의 ‘흐릿한 기운’과 같은 것이다.

습, 곰, 노루 등이 간간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오고, 아침에 해가 겨우 세 길쯤 떠오르면, 섬(울릉도 또는 두 섬) 안의 피꼬리들이 무리지어 날아와 죽변 곳에 내려와 앉는다.

이에 대해 유미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이원택 박사는 … ‘늘상 볼 수 있다(尋常可見)’에서 끊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대상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끊는 것은 문리에 맞지 않는다. 그는 바다를 건너오는 짐승들을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짐승들로 해석했는데, 앞 문장에서 ‘울릉도’가 주어로 되어 있는데, 뒤 문장에서는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시습, 곰, 노루 등이’라고 하여 주어를 애매하게 처리한 것도 맞지 않는다.”²⁵

어쨌든 『와유록』 「울릉도」 첫 번째 문장 번역에서는 이원택과 유미림 박사의 의견이 일치한다. 두 섬 즉 우산도와 울릉도가 영해 즉 육지에서 멀지 않다는 것이다. 이원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八道總圖)」를 보고 이 구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답사를 하고 글을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려오던 일반적인 교과서적 지식을 가지고 글을 지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산도가 바다 공기가 청량하거나 육지의 높은 곳에 올라야 보인다고 하고, 울릉도는 육지에서 늘 보인다고 한 것이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들이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해 주는 보조 문장들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모두 육지에서 두 섬 사이의 거리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부연 설명한 것이다. 특히 “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清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과 “鬱陵稍峻, 風浪息, 則尋常可見。”은 맺구이다. 우산도는 낮고, 울릉도는 높으며, 따라서 우산도는 육지의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25 유미림, 앞의 논문, 77쪽.

울릉도는 파도만 잠잠해도 육지에서 늘 보인다고 한 것이다. 이 두 문장을 뗏구라고 보지 않으면, 더 이상 토론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 두 섬과 육지 사이에 짐승과 새들이 왕래할 만큼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산해의 「울릉도설」을 보면, 앞의 「울릉도」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버랩 된다. 첫째는 육지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이다.

울릉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 육지와는 거리가 몇 백 리가 되는지 모른다. 매년 가을과 겨울이 교차할 즈음 흐릿한 기운이 말끔히 걷히고 바다가 청명할 때, 영동(嶺東)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 조각 푸른 이내가 수평선 저편에 가로놓여 있는 것과 같다. 유독 진주부(眞珠府: 삼척)가 이 섬과 가장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행인들 중 소공대(召公臺)에 오른 이들은 더러 이 섬의 숲과 뿔바리의 형상을 명료하게 볼 수 있으니, 이로써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²⁶

둘째, 울릉도로부터 짐승과 새들이 육지로 나왔다는 것이다.

기성(箕城: 평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루나 사슴, 갈대, 대나무 따위가 왕왕 바닷가 백사장에 떠밀려 오고, 이름 모를 새들이 날아서 바다를 건너 해변까지 와서는 그만 힘이 빠져 날갯죽지를 드리운 채 떨어져 아이들에게 잡힐 적도 자주 있다. …”²⁷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미림 박사도 『서계잡록』의 「울릉도」 인용문 첫째 문장을 ‘두 섬’과 육지 사이의 거리로 번역하고 있다. 이 점이 「울릉도」의 요지이며 포인트이다. 그래서 이원택은 「울릉도」에 나타난 우산도·울릉도

26 이산해, 『鵝溪遺稿』 권3, 「鬱陵島說」(『울진 고문헌 자료집성』, 490쪽에서 인용)

27 이산해, 『鵝溪遺稿』 권3, 「鬱陵島說」(『울진 고문헌 자료집성』, 490쪽에서 인용)

인식이 『신증동국여지승람』 단계의 인식이라고 한 것이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장한상과 안용복의 공적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유미림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위 문장을 해석하는데 논란이 있는 이유는 ①저자가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 기술된 내용의 맥락으로 보건대, ②두 섬이 육지(영해)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했으므로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날씨와 고도라는 조건이 맞으면 두 섬이 육지에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택 박사가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바다 공기가 아주 맑지 않거나 (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해, 즉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박세당은 앞 문장에서 주어를 ‘두 섬이’라고 기술한 것과 달리, 뒤 문장에서는 주어를 ‘우산도는’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③뒤 문장에서 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인다고 한 섬은 우산도를 가리킨다. ④다만 어디에서 우산도가 보이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박세당의 문장대로 해석한다면, 우산도는 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조건만 충족되면 보이는 섬이다. 그렇다면 이때 ‘보인다’고 한 곳의 기준은 어디인가? ⑤필자는 우산도가 보이는 지점을 울릉도라고 해석했고, 이원택 박사는 영해나 육지로 해석하였다. 이원택 박사의 해석대로라면, 맑은 날 육지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산도가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이 기술한 “蓋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를 “대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은 여기서(영해, 즉 육지)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는데, ⑥이는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을 한데 묶어 육지에서 보이는 섬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근거를 박세당의 글이 ⑦『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조 첫머리 언급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데 두었다.²⁸

28 유미림, 앞의 논문, 73-74쪽. ①~⑦은 인용자가 표시한 것임.

유미림 박사는 위의 서술에서 스스로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유 박사는 문장의 맥락상 ②“두 섬이 육지(영해)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했으므로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날씨와 고도라는 조건이 맞으면 두 섬이 육지에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원택의 기술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 ③“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인다고 한 섬은 우산도를 가리킨다”고까지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④“다만 어디에서 우산도가 보이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②에서 “두 섬이 육지에서 보인다”고 해놓고, ④에서는 “분명히 하지 않아 혼란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유박사는 ①“저자가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원택이 보기에는 「울릉도」 저자의 관점은 매우 명확하다. 유박사는 ②에서 “두 섬이 육지에서 보인다”고 해놓고, ⑤에서는 “필자는 우산도가 보이는 지점을 울릉도라고 해석했고, 이원택 박사는 영해나 육지로 해석하였다.”라고 한다. ⑥에서 ②를 한번 더 확인하여 스스로가 모순을 드러내면서, 논점을 ⑦『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조항으로 옮겨간다. 그리하여 유미림 박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 조항은 “두 섬이 동쪽바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두 섬 모두 육지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⁹ 나아가 “‘울릉도’에만 () 형식의 분주가 붙어 있다. 분주는 ‘울릉도’에만 해당”³⁰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두 섬이 동쪽바다에 있다’는 것은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에 대한 분주가 아닌가? 그리고 두 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울릉도에만 해당된다는 것인가? 나아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그려진 우산도와 울릉도는 그 주석에서 말한 ‘두 섬’이 아니란 말인가? 『서계잡록』의 「울릉도」는 ‘팔도총도’와 같이 우산도와 울릉도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29 유미림, 앞의 논문, 75쪽.

30 유미림, 앞의 논문, 75쪽.

유미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박세당은 우산도의 지세가 낮다고 했는데, 이원택 박사는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이때의 우산도는 지세의 고저와 상관없이 보이는 섬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산도는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³¹

유미림 박사의 이와 같은 언급은 장한상·안용복 단계의 경험적인 관점을 무리하게 그들 이전의 옛 문헌 번역에 투사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여지승람』이 만들어진 조선 전기 성종대의 인식 수준에서는 ‘팔도총도’에서 볼 수 있듯이 우산도의 위치 인식이 정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순천장씨 학서주손가 기탁 문헌 가운데서 장한상 관련 자료를 다수 새로 발견하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자료를 『충효문무록』과 『절도공양세실록』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순천장씨 가문의 족보 편찬과 문헌록 편찬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필자가 작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료 부족으로 범한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또 필자의 작년 논문에 대하여 축조 비판을 행한 유미림 박사의 비판에 대하여 필자의 천견(淺見)을 재정리하여 서술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순천장씨 가문의 문헌록 편찬이 족보 편찬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족보편찬은 지금까지 총 6회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31 유미림, 앞의 논문, 76쪽.

1900년, 1922년, 1955년, 1977년 등 4회를 주 대상으로 소개하였다. 4회의 족보편찬과 함께 문헌록이 아울러 편찬되었는데, 첫 번째 문헌록이 바로 『충효문무록』이었고, 뒤에는 『승평문헌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편찬되었다.

둘째, 『충효문무록』에 「절도공양세실록」이란 명칭의 편목이 처음으로 편성되었으며, 이후 『승평문헌록』에 「절도공실록」과 「소절도공실록」으로 나뉘어 계속 등재되어 왔다.

셋째, 경덕사 소장본 『절도공양세실록』과 같은 내용의 또 다른 필사본 『절도공양세실록』이 학서주손가 문헌 속에서 나왔는데, 아마도 『충효문무록』을 편찬하면서 경덕사본 『절도공양세실록』을 사용하고 나서 한 부를 필사해 놓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넷째, 「울릉도사적」 및 『서계잡록』 「울릉도」에 대한 필자의 몇 가지 논점을 비판한 유미림 박사의 논지를 재비판하고 필자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는 논지를 서술하였다.

끝으로, 이번에 새로운 자료를 소개한 의의는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순천장씨 학서주손가(鶴棲胄孫家) 기탁 문헌들과 의성조문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덕사 기탁 문헌들을 합하여 연구하여야 순천장씨 문헌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장한상 및 그의 「울릉도사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참고문헌]

『順天張氏族譜』(乙丑譜), 『順天張氏族譜』(庚子譜), 『順天張氏族譜』(壬戌譜), 『順天張氏族譜』(乙未譜), 『順天張氏族譜』(丁巳譜), 『忠孝文武錄』, 『昇平文獻錄』, 『節度公兩世實錄』, 『節度公兩世碑銘』, 『喬桐水使公輓祭錄』, 『臥遊錄』, 『西溪雜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鵝溪遺稿』

順天張氏譜所 編, 『昇平(順天張氏)文獻錄』, 大邱: 大譜社, 1992.

김기혁·윤용출, 『울릉도·독도 역사지리 사료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2010.

울진문화원, 『울진 고문헌 자료집성』, 울진문화원, 2016.

유미림, 『우리 사료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3.

한국국학진흥원 편, 『2003년 한국국학진흥원 수탁 국학자료 목록집』, 한국국학진흥원, 2004.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김영진, “조선후기 ‘臥遊錄’ 이본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5.

유미림, “「울릉도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 『동북아역사논총』 64호, 동북아역사재단, 2019.

이원택,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집,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2018.

이종묵, “조선시대 臥遊 文化 研究”, 『진단학보』 제98집, 진단학회, 2004.

최장근, “독도명칭: ‘우산도’가 ‘석도’로 전환하는 과정의 고찰”, 『한국의 독도수호정책과 일본의 독도침탈정책 실상』(독도연구보존협회 2013년 학술대론회 자료집),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존협회, 20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서비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검색서비스.

국문초록

이 글은 그동안 울릉도·독도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순천장씨 학서주손가(鶴棲胄孫家) 기탁 문헌들 가운데서 1694년 울릉도 수토를 하였던 장한상(張漢相) 관련 자료를 소개하면서, 필자가 경덕사 자료만을 참고하여 발표한 기왕의 연구에서 잘못 추정하여 기술한 사항들을 수정하고, 또 필자의 기왕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논박한 논문에 대해 필자의 관견(管見)을 재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순천장씨 가문의 문헌록 편찬이 족보 편찬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1900년 경자보의 편찬과 함께 『충효문무록』이 편찬되었고, 그후 계속하여 족보가 편찬될 때마다 문헌록도 『승평문헌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편찬되었다.

둘째, 『충효문무록』의 편목에 「절도공양세실록」이 처음으로 편성되었으며, 이후 『승평문헌록』에 「절도공실록」과 「소절도공실록」으로 나뉘어 계속 등재되었다.

셋째, 경덕사 소장본 『절도공양세실록』과 같은 내용의 또 다른 필사본 『절도공양세실록』이 학서주손가 문헌 속에서 나왔는데, 아마도 『충효문무록』을 편찬하면서 경덕사본 『절도공양세실록』을 사용하고 나서 한 부를 필사해 놓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넷째, 「울릉도사적」 및 『서계잡록』 「울릉도」와 관련한 필자의 주장에 대한 유미립 박사의 비판에 대해 재반론을 하여 필자의 기존 견해를 견지하였다.

〈주제어〉

독도, 장한상, 학서주손가, 「울릉도」, 「울릉도사적」, 『절도공양세실록』, 『충효문무록』, 『승평문헌록』

ABSTRACT

Introduction of *Record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忠孝文武錄) and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with an Argument against the Criticism of My Research on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

Rhee Wontaek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literary collections about General Jang Han-sang's Ulleungdo and Dokdo patrol governance in 17C Josun Dynasty, which the Suncheon Jang Family Hakseojusonga trusted to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in Andong.

First, it is confirmed that compilations of the literature of the Suncheon Jang Family were done periodically along with compilations of its genealogy. In 1900, *Record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忠孝文武錄) was compiled at the same time with the compilation of *Gyeongja-bo*(庚子譜), and since then, it has been continuously compiled under the name of *Literary Records of the Suncheon Jang Families*(昇平文獻錄). Second, the chapter of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from the identically entitled book of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was first compiled in *Record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忠孝文武錄), and was later included into the *Literary Records of the Suncheon Jang Families*(昇平文獻錄) as separated into two chapters of “Real Records of the General”(節度公實錄) and “Real Records of the Young General”(少節度公實錄). Third, another manuscript of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 which was presumably copied from the identically-named book in the collection of Gyeongdeoksa Shrine is in Suncheon Jang Family Hakseojusonga literary collections. Fourth, I present an argument against the criticism of my research on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Key Words

Dokdo, Usando, Jang Han-sang, Hakseojusonga(鶴棲胄孫家), “Track Records in Ulleungdo Irelands”(蔚陵島事蹟), *Real Records of the Two Generals*(節度公兩世實錄), *Record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忠孝文武錄), *Literary Records of the Suncheon Jang Families*(昇平文獻錄)